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축사(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 김성환 전 장관님, 미치가미 히사시(MICHIGAMI Hisashi) TCS 사무총장님, 주한중국대사관 싱 하이밍(XING Haiming) 대사님, 주한일본대사관 아이보시 고이치(AIBOSHI Koichi)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021년 3국 협력 국제 포럼(IFTC)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3국협력사무국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신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님을 비롯한 모든 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일중 3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 인사분들과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제가 6년 전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총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5년 11월에 열린 제6차 정상회의는 약 3년 반의 공백 끝에, 서울에서는 최초로 개최되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무국과 함께 밤낮으로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사무국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만큼 세상이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1년 우리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역내외 환경이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역내 중심적인 지역협력기구로서 묵묵히 세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3국협력사무국의 지난 10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 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또 인구나, 교역액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3국간 협력은 역내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8년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우리 3국을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라고 명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 나라 간 협력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계속 강화되어왔습니다.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3국의 협력관계는 더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3국 협력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정부 간 협의체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국 주도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은 전례 없는 시련과 도전 앞에서 세 나라 간 협력 의지가 더욱 굳건해진 해였습니다. 3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자마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전염병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

해서는 3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교육·보건·교통물류 등 7개 분야의 장관급 협의를 개최하여,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 전염병과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수 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각 분야에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나라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3국 협력의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우리 3국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지난 선택을 아쉬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10년이 지난 후, 우리 세 나라가 함께 걸어온 길을 뿌듯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이 도약으로 향하는 길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해 3국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통찰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